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 평가… 하위 20%엔 경선 시 폐널티

## 오영훈 지사 “난 아냐”… 중앙당 “확인 불가”

제주 정가 ‘초미의 관심사’… 오 “통보 받은 것 없다”  
“재선 도전 선언·후보 등록, 경선 일정 고려해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을 상대로 올해 지방선거에서 감점을 받을 하위 20%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은 하위 20%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오 지사는 4일 도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하위 20%에 포함된 당사자에게 평가 결과가 통보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통보 받은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상대로 평가를 진행해 하위 20%에게 올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 폐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장에 대해선 중앙당이

꾸린 평가위원회가, 광역의원에 대해선 각 시도당이 꾸린 평가위원회가 각각 맡아 평가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오 지사를 포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5명으로 이중 1명은 하위 20%로 분류된다.

하위 20%는 경선에서 득표 수의 20%를 감산되기 때문에 누가 하위 평가를 받았는지가 지방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만 민주당 중앙당은 하위 20% 평가 결과가 당사자에게 실제로 통보됐는지를 묻는 본보의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오 지사의 말이 사실인지는 현재로선 파악



오영훈 지사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되지 않는다.

오 지사는 재선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 경선 일정을 고려해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역 지자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경

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마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 지사는 언론사들이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저의 기대만큼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다”며 “민선 8기 도정 성과가 (도민들에게) 공유되지 못했다. 우리의 정책을 도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부족했다”고 했다.

또 최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문대림 국회의원이 민선 8기 도정을 연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의 정책적 문제 제기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면서도 “다만 근거 없는 비방이나 막타도어는 지양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걸었고, 제주도와 민주당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왔던 관계까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상민기자



겨울 농촌… 콜라비 수확 분주 4일 제주시 애월읍 하구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콜라비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한국마사회, 말산업 1번지 제주로 이전해야” 위성곤 국회의원, 어제 국회서 기자회견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말 산업

의 1번지는 누가 뭐래도 제주”라며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을 강력 촉구 했다.

위 의원은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이 정부 균형발전 의지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위 의원은 “전국 말의 절반 이상이 제주에서 태어나 자란다. 생산

과 육성, 경주와 조련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춘 유일한 곳으로 현장과 동떨어진 수도권 본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면서 “그동안 제주는 섬이라는 이유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적 논의에서 번번이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2018년 제주로 이전했던 재외동포재단이 2023년 청으로 승격하면서 수도권으로 복귀한 점을 상기시키며 “제주는 심지어 기존에 있던 기관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마사회 제주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IT, 관광, 교육이 결합한 ‘말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대규모 경제 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특히 이번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기관의 위치를 옮기는 조치를 넘어, 죽어가는 지방에 생존의 불씨를 지피는 국가적 선언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말 산업 1번지인 제주에 마사회 본사가 위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미현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제주 방문

제2공항 관련 간담회 개최  
농업인 등 상대 의견 수렴



6일에는 오전 8시 20분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진상규명 및 특검 수용 피켓시위 현장인 표선면을 찾아 격려한

후 성산읍사무소에서 제2공항 건설 관련 성산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 대표는 이어 남원읍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찾아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호남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 선출 방식 ‘안갯속’ 고기철 도당위원장 ‘포기’… 김승욱 전 위원장 ‘고민’ 문성유 전 기재부실장 ‘출마’… 중앙당 전략이 변수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 선출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경선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지만 후보로 거론됐던 주자들의 움직임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읽히고 있어서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제주도 지사 선거 후보군으로 고기철 도당위원장, 김승욱 전 도당위원장,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거론돼왔다. 그런데 고 도당위원장의 경우 최근 언론사가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후보군에서 빼 줄 것을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 4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하고, 제가 출마에 확고한 뜻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열세인

상황에서 다른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돋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욱 전 도당위원장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며 출마 여부 결정에 고민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본지에 “당내 다른 출마자와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가 확고한 문성유 전 실장과 소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실장의 경우 조만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으로 출마 의사가 명확히 선 상태다. 문 전 실장은 “제주는 내수 경제, 젊은 층 일자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문 전 실장만 유일하게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만큼, 국민의힘 중앙당의 제주지사 선거 전략이 후보 선출 과정에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부미현기자

### 도, 관광개발사업장 투자 이행실적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 이행과 지역경제 기여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전체 관광개발사업장 43곳 중 투자 완료 후 5년이

지난 6곳을 제외한 나머지 37곳을 상대로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장별 투자실적과 도민 고용률,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조사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재단법인 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2026년 제1학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 안내

본 재단에서는 제52차(통산116차) 장학생 선발을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2026.02.09.(월) 09:00 ~ 2026.02.27.(금) 17:00

### 지급 금액

2,000,000원

8) 부모 각각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기간: 2025.07.01.~2025.12.31.) 확인서 각 1통

9)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통

10) 부모 이외의 사람이 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1통

(8~10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행, 사본도 가능)

1)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장학생 이사 및 선정위원은 장학 대상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접수 마감 일시까지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본회 소정방식은 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홈페이지(www.sjsf.co.kr)와 서울제주도민회 홈페이지(www.jejuinseoul.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개별 통보하며, 지금 일정도 개별 통보합니다.

2026. 02.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김창희



#### □ 선발대상(자격)

- 1) 출신 및 대학: ①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원의 자녀로서 국내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재학생  
②제주 거주 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국내)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재학생
- 2) 선정 기준: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 학생을 원칙으로 함.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학생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함.
- 3) 취득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4) 제외 대상: ①신입, 편입의 경우 당해 학기의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②장학생 선정된 후 해당 학기 수료 전에 휴학이나 자퇴(또는 퇴학)할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취소되며 지원된 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 □ 구비서류

- 1) 본회 소정 양식의 자원서(명함판 사진 부착)
- 2)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통
- 3)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성적증명서 1통
- 4) 총장 또는 학생처장, 학장이 발급한 2026년 1학기 장학금 수혜여부확인서 1통(학교 양식으로 제출 가능) ※학교 및 티장학단체(국가장학금 포함)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00만원 이하 수혜자는 예외
- 5) 등록기준지나 원적지를 제주로 인정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통
- 6)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1통
- 7)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나 원적지 제주가 아닌 경우 신청인 본인이 제주에서 초·중·고를 수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